



“환상적이야” 22일 공식적인 첫 연습주행에 나선 F1 머신들이 영암서킷의 코너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 올 시즌 유일한 신생 서킷인 영암서킷은 트랙 노면이 미끄러워 승부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F1 이모저모

기념품점 대박 ... 자동차 동호회원들 몰려

○경주장 메인스탠드 입구에 위치한 F1 팀들의 기념품점은 예상 외로 장사가 잘돼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놀라는 눈치였다. 현재 F1 팀 종합 1위를 달리고 있는 레드불 레이싱팀은 마크 웨버와 세바스찬 베텔이라는 가장 인기 있는 드라이버를 보유한 덕분에 기념품 판매량에서도 다른 팀 판매량을 넘어섰고 있었다. 장유민(여·21·대학생)씨는 “오늘은 연습주행만 있는 날인데도 오전에 티셔츠 30장 이상을 판매했다”며 “반팔 티셔츠가 1장에 7만원이라는 비싼 가격임에도 판매가 잘돼 인기를 실감했다”고 말했다. ○구립공고와 영암여고·영암고 등 영암지역 고교생들은 이날 단채로 경주장을 찾아 연습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김모(17)양은 “평상시 주변에서 볼 수 없었던 외국인이 하도 많아 마치 외국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든다”며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런 행사가 열리는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호기심으로 경주장을 찾은 주변 지역 노인들도 많았다. ○“국내외의 아마추어 자동차경주 동호인들도 대회를 보기 위해 영암으로 집결하고 있다. 부산에서 한결음에 달려왔다는 ‘마니아 스페’ 아마추어 자동차경주 동호회 회원 30여명 22일 이른 아침부터 경주장을 찾아 형형색색의 가발을 쓴 채 돌아다니며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F1대회를 즐겼다. 영국의 페라리 동호회 회원 20명도 지난 18일부터 목포에 들어와 F1 그랑프리를 즐기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22일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막과 관련한 축하메시지를 통해 “반드시 유종의 미를 거둬 서남권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 경제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동기기자 exian@kwangju.co.kr

■ F1 경기장 갈 때 이것은 꼭 챙기자

귀마개 필수 ... 망원경·카메라·우비 준비

F1은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스포츠라 처음 보는 관객들이 많다. 그렇다보니 경기장에 갈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귀마개다. F1의 또 다른 묘미가 ‘굉음’을 즐기는 것이지만 시속 300km로 달리는 24대의 머신에서 동시에 터져나오는 750마력의 엔진소리는 마치 전투기가 지나가는 것 같다.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곤혹스럽고 아이들은 놀랄 수도 있다. 주최측이 귀마개를 준비했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경주장 주변에서 구입하기도 힘들어 미리 챙겨가는 것이 좋다. 아이들이나 귀가 약한 사람들은 플러그(꽃) 방식보다는 헤드폰 귀마개가 적합하다. 등산용 방석과 카메라도 가져가면 유용하다. 관망 좌석이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이라 방석이 필요하고 카메라는 망원렌즈가 달린 것이 좋다. 날씨가 맑다면 모자가 필수지만 예선전(23일) 날은 흐리고 결승전(24일) 날은 비가 예상되니만큼 비옷을 챙겨야 한다. 경주장은 가설스탠드는 물론 지붕이 있는 메인그랜드스탠드 조차 비가 오면 흠뻑 젖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비옷이나 우산이 있어야 하는데 우산은 다른 관객의 시선을 방해하기 때문에 가능한 비옷이 좋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F1 알고 보면 재미 두배

⑥ 세이프티 카

안전문제 발생 때 투입...F1 머신도 추월 금지

최고 속도 시속 350km를 자랑하는 F1 머신도 추월할 수 없는 차가 있다. 바로 ‘세이프티 카’다. F1 머신의 고장률과 추돌, 드라이버의 실수 등으로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이프티 카가 투입된다. 이 차가 서킷에 들어오는 것은 레이스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폭우 등으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때도 세이프티 카가 안전을 확보한다. 레이스의 안전을 책임지는 세이프티 카의 권한은 절대적이다. 날고 기는 F1 드라이버라도 절대적으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추월도 금지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여자 없이 페널티가 주어진다. 세이프티 카가 출동하면 드라이버들의 회비가 엇갈린다. 선두권 드라이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힘겹게 벌러놓은 후발주자들과의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세이프티 카가 서킷 밖으로 나갈 때까지 주행한 것도 전체 레이스 과정에 포함된다. 지붕에 달린 경광등은 추월색일 때는 추월 금지를 의미한다. 녹색이면 경기가 정상화 됐다는 신호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연습주행 마친 스타 드라이버들 인터뷰

“시속 320km 이상...모험 걸만한 멋진 서킷”

‘미끄러지만 드라이버에게겐 모험을 감행할 만한 정말 멋진 서킷’ 모터스포츠계의 슈퍼스타들인 F1(포뮬러원) 드라이버들은 국내 최초로 치러진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에 대해 대체로 만족스러움을 표시했다.

22일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첫 연습주행을 마친 뒤 24명의 드라이버들은 흥미롭고 도전적인 서킷이라고 입을 모았다. 미하엘 슈마허(독일·메르세데스 GP)는 이날 오후 두 차례의 연습주행을 마친 뒤 인터뷰에서 “놀라울 만큼 만족스러웠다. 스피드를 낼 수 있도록 이성적으로 잘 구성된 서킷”이라고 평가했다. 슈마허는 오전 연습주행에서 6위(랩타임 1분42초022), 오후에는 12위(1분39초598)를 기록했다. 그는 “오늘은 시속 320km를 넘어서는 것도 가능한 것 같다”고 했다.

펠리페 마사(브라질·페라리)는 “코리아 서킷을 정말 좋아한다. 온갖 종류의 코너를

- 슈마허 “스피드 내기 좋은 구성 놀랄만큼 만족스럽다”
- 마사 “온갖 종류 코너 갖춘 매우 긴 서킷 ... 정말 좋다”
- 알렉수아리 “마지막 코너 멋져 ... 어렵지만 도전하고파”
- 신생 코스라서 매우 미끄럽고 이물질 많다는 지적도

니코 휠켄베르그(독일·윌리엄스)도 “코리아 서킷은 매우 멋지다. 정말 즐겁게 운전했다”고 했다.

특히 3구역으로 나뉜 서킷 가운데 마지막 곡선 구간에 대한 만족스러움이 높았다. 하이메 알퀘수아리(스페인·토로 로소)는 “코

리아 서킷의 마지막 코너는 정말 멋지다. F1 드라이버로 모험을 감행할만한 멋진 코스”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일본인 드라이버 고바야시 가무이(일본·BMW 자우버)도 “너무 미끄럽다(too slip-

pery)고 마지막 구간이 좀 어렵지만 도전할 만한. 전체적으로 멋진 서킷”이라고 평했다. 아드리안 수탈(독일·포스인디아)은 “몇 개의 좋은 코너를 갖추고 있다. 특히 굽어졌다가 피트로 들어가는 마지막 구간은 흥미롭고 운전하는 재미가 있다”고 했다. 티모글록

(독일·버진레이싱)은 “드라이버가 요구하는 것들을 갖춘 서킷으로, 기술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신생 서킷”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생 서킷이라 미끄럽다거나 이물질이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고바야시(일본·BMW SAUBER)는 “너무 미끄러운 게 유일한 문제점”이라고 했고 루이스 헤밀턴(독일·맥라렌)은 “지금까지 달려본 서킷 가운데 가장 이물질이 많았다”고 불만을 나타내며 “오후 들어 나아졌지만, 이물질이 서킷에 많이 깔려 주행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웨버는 “오전엔 다소 미끄러운 느낌이 많았다. 다만 누구에게나 똑같은 조건이라는 것이 다행”이라고 했고 비탈리 페트로프(러시아·르노)는 “오전과 오후 이물질이 매우 많았다”고 불평했다.

세바스티안 베텔(독일·레드불) 역시 “오전에 이물질이 많았는데 오후 들어 많이 나아간 것 같다. 오전엔 속도를 내기 힘들었다”고 아쉬워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꿈의 스피드 축제가 온다 2010 FORMULA 1 KOREAN GRAND PRIX.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KJIF (www.kjif.com), Hwangkwan Hotel, and IANZ Insurance.